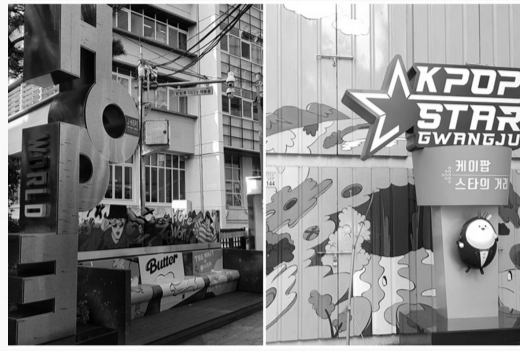


“BTS 성지순례 왔어요”… 광주 관광 ‘훈풍’

광주관광재단 ‘휴데이 투어’ 성황
광주 출신 제이홉 생일 이벤트
동구 K-POP 거리 등 4곳 인기
“광주 담은 가사… 관광업계 영향”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K-POP 스타의 거리. 뉴스시스

광주 서구 청춘발산마을, 동구 금남로 K-POP 팬존3, 동구 충장로 K-POP 스타의 거리,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 벽화·조형물부터 팬아트까지 광주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제이홉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제이홉 영향으로 광주 관광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관계기관이 K-POP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제이홉이 BTS 노래와 SNS를 통해 5·18을 언급하면서 덩달아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찾는 외지인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광주관광재단은 2월18일 제이홉의 생일을 맞아 지난 3일부터 ‘광주 휴데이’ 투어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광주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 및 BTS 팬덤을 대상으로 선착순 218명에 한해 ‘휴월드 스노우볼’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20일까지 180여개가 소진됐다.

광주관광재단은 휴데이 투어 이벤트 참가자 중

우수 후기 작성자를 선발해 오는 4월 7일 개막 예정인 광주 비엔날레의 입장권을 증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광주를 찾도록 연계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동구 충장로 골목에 K-POP 스타 거리를 조성하면서 제이홉 조형물 등을 설치했다. 제이홉이 지난해 생일에 맞춰 K-POP 스타의 거리를 방문해 SNS 인증샷을 올리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꼭 방문해야 할 성지순례 한 곳으로 꼽힌다.

현재 K-POP 스타 거리에는 광주 출신인 BTS 제이홉, 수지, 유빈, 헤린, 에이티즈 윤호, 선미 등 50명의 스타 핸드 프린팅과 스타 애장품이 전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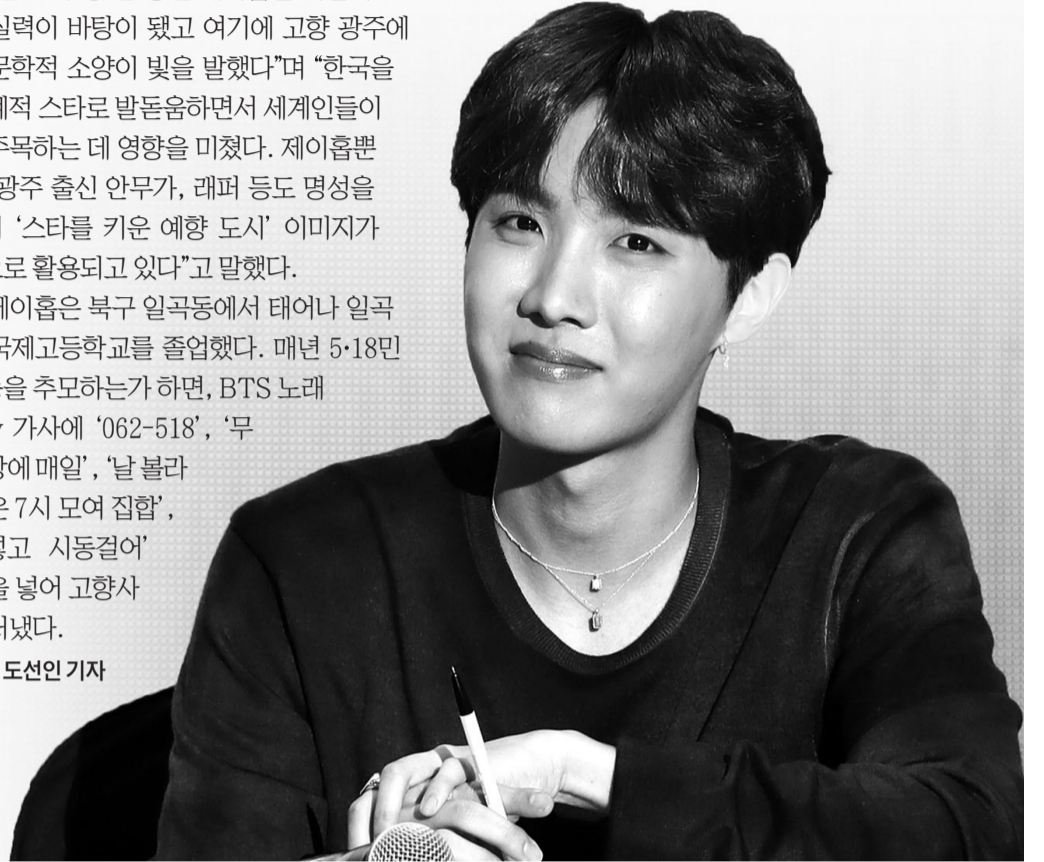
팬존 3곳이 있다.

손영미 조선대 K-컬처공연·기획학과 교수는 “광주 출신 스타 중 한 명인 제이홉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실력이 바탕이 됐고 여기에 고향 광주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이 빛을 발했다”며 “한국을 넘어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하면서 세계인들이 광주를 주목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제이홉뿐 아니다. 광주 출신 안무가, 래퍼 등도 명성을 얻으면서 ‘스타를 키운 예향 도시’ 이미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이홉은 북구 일곡동에서 태어나 일곡중학교·국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가 하면, BTS 노래 Ma City 가사에 ‘062-518’, ‘무등산 정상에 매일’, ‘날 불러면 시간은 7시 모여 집합’, ‘KIA 넣고 시동걸어’ 등 표현을 넣어 고향사랑을 드러냈다.

도선인 기자

↓ BTS의 멤버 광주 출신의 제이홉. 뉴스시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기억 ‘이영만연극상’ 제정

첫 작품상에 ‘2014년생’ 선정
유가족 연극배우 이미경 제정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아들 고 이영만군의 이름을 따 ‘이영만연극상’을 제정한 이미경씨. 뉴스시스

연극배우 이미경씨가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아들 고 이영만군의 이름을 따 ‘이영만연극상’을 제정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참사의 교훈을 새롭게 해석해 현재의 가치로 제시해온 연극인들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상으로, 이군의 생일인 매년 2월19일 시상식이 이뤄진다.

지난 19일 연극실험실 해화동1번지에서 열린 첫 시상식에서는 △특별상 장진석 수어통역사 △배우상 박은호 △단체상 연극실험실 해화동1번지 7기 동인 △작품상 ‘2014년생’ 등 네 부분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이 전달됐다. 선정위원으로는 고주영 공연예술 독립기획자, 김태현 4·16가족단 노란리본 상임연출, 양근에 연극평론가가 참여했다.

첫 작품상으로 선정된 ‘2014년생’은 2014년에 태어난 시원을 통해 어린이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평목향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 지 생각

했다. 시원의 태도는 참사라는 비극과 변하지 않는 현실을 자꾸만 떠올리며 불가능한 애도와 무기력을 반복하는 어른들에게 질문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송김경화가 구성·연출을 맡았고, 세월호 생존자 김주희씨가 연극 제작에 참여했다.

특별상을 받은 장진석 수어통역사는 해마다 해화동1번지 동인이 주최하는 세월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여러 작품의 수어통역을 맡았다.

배우상 수상자 박은호 배우는 지난해 페미니즘연극제에 참여한 ‘240 245’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며 지켜야 할 존재의 다양성에 대한 사유를 던져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체상을 수상한 ‘연극실험실 해화동1번지 7기 동인’(김기일·송정안·신재·윤혜숙·임성현)은 2019~2022년 4년의 활동기간 동안 매년 ‘제자리’(2019), ‘극장들’(2020), ‘살아갈, 사라진, 사람들’(2021), ‘2022∞세월호’(2022) 등 세월호 기획 하에 연극작품을 선보였다.

안산 단원고 2학년6반이었던 이영만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다. 이군의 어머니 이미경 배우는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희곡읽기 모임으로 시작한 4.16가족단 노란리본 창단멤버로, 다양한 무대에 올랐다. 노란리본 공연 외에도 ‘배우에 관한 역설’, ‘조룩북 목소리’ 등 여러 연극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시스

‘인간 삶’ 기록 고찰 문학과 미술의 조우

전남도립미술관 ‘시의 정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념

전남도립미술관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해 21일부터 6월4일까지 단체전 ‘시의 정원: Poetic Paradise’를 개최한다.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 삶에 대한 기록을 고찰하고 미술과 문학이 조우하는 현장을 목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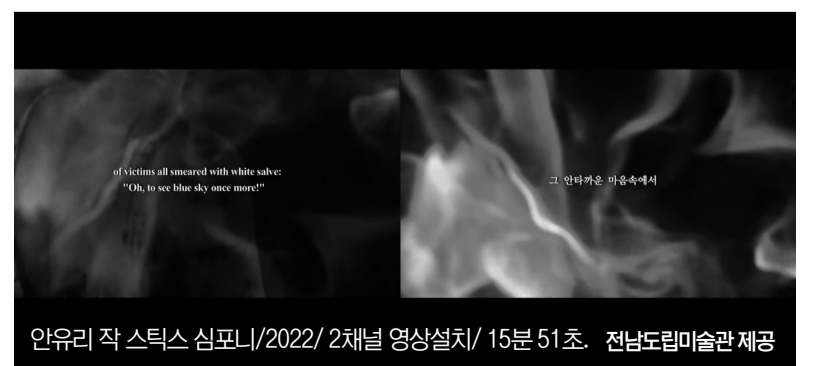
전시는 사라진 말과 이야기를 다루는 안유리(1983-)의 영상 작업으로 문을 연다. 안유리 작가는 고정희 시인의 ‘프라하의 봄 7:85년의 C형을 목상함’을 비롯해 일본의 구리하라 사다코, 폴란드의 비스와바 험보르스카, 미국의 마야 안젤루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이번 작품을 선뎠다. 안 작가는 개인이 어떻게 역사적 사건을 체험하고 목격해 기록으로 남겼는지 보여주면서 개별적인 지역을 넘어 세계 역사의 아픔에 인류애적 공감을 구한다.

미술작가 이매리는 인류의 탄생, 인간의 삶과 죽음, 민족과 국가의 생성과 소멸에 관해 작업한다. 이매리 작가는 성경과 에즈라 파운드,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금분으로 써 내려감으로써 인류에 의해 계속되는 장

구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통’과 ‘관계 맺기’를 키워드로 작업하는 대만 작가 리밍웨이(1964-)는 이번 전시에서 구레 출신 소설가 정지아와 함께 한 공동 작업을 공개한다.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널리 알려진 정지아는 리밍웨이 작가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구레를 여행하며 작품 ‘The tourist’(2023)에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영화감독이자 미술작가인 임흥순(1969-)은 완도 출신 소설가 임철우의 ‘백년여관’에서 영감을 받아 동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임흥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시선을 담아냈다.

21일 전시 개막전에서는 임흥순의 신작 연극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된다. 오는 22일에는 리밍웨이와 소설가 정지아가 참여하는 아티스트 토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매리, 임흥순, 안유리 작가도 3, 4, 5월에 순차적으로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http://artmuseum.jeonnam.go.kr>)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안유리 작 스틱스 심포니/2022/ 2채널 영상설치/ 15분 51초.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미래 예술의 세계... ‘미러 모멘트’ 전시

28일까지 동구 미로센터
디지털예술 생태계 구축

광주 동구는 오는 28일까지 복합문화공간 미로센터에서 ‘미로 메타 아트(MiroMeta Art) 프로젝트’ 공유 쇼케이스 ‘미러 모멘트(MiRROr Momen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미로메타 아트(Miro Meta Art) 프로젝트’를 통해 △상상이 현실이 되는 ART △‘디지털아트창작자커뮤니티’ 구축 △웹 3.0 기술 진전을 실험하는 디지털 예술 국제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유 쇼케이스인 ‘미러 모멘트’는 디지털 아트 국제공모 ‘제1회 미로 레이스’ 선정 작가, 스페셜 초청 작가, 예술의 거리 입주 작가 등 50여명이 모여 ‘더 모멘트 2022(The Moment 2022)’를 주제로 △국경과 이주 △기후변화와 위기 △코로나 19와 뉴노멀 등 3개 부제를 구현하는 다수 작품을 선보인다.

앞서 동구는 지난 16일 개막행사를 통해 12개국 125명이 응모한 디지털 아트 국제공모 ‘제1회 미로 레이스’ 수상 작가 3명과 입선 작가 37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3명의 수상 작가는 △1등 운영원 ‘We=

flower’ △2등 김재인 ‘더 뉴뉴 노멀’ △3등 티안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신화’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탈 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새로운 플랫폼인 ‘웹 3.0’을 경험할 수 있다. 동시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창작자들의 작품 50여 점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의한 공동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초청 작가(김기라·김보슬·서효정·진시영·최재영·Studio mbus703)와 예술의 거리 입주작가(김춘미·한미경·정혜영·최수미·박제인·문서현·김병택·김정연)의 디지털 아트도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 문화관광과 미로센터(062-608-2131)로 문의.

도선인 기자